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곡 초등하교 3 학년 장하은 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10 살로 어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자유발언을 하게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뽑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이라는 아줌마가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는 최순실 아줌마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을 사이비 종교 무당에게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미국을 뛰어넘는 막강한 세계 1 위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모든 국민이 일을 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마법의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부족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조금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쁜쪽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하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의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아줌마의 딸인 정유라 언니는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정유라 언니때문에 피해를 입은 열심히 노력한 언니 오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순실 아줌마 처럼 가진 것이 많아서 돈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엄마 아빠들 보다 정의를 가르치고 노력을 가르치는 저희 엄마아빠같은 분들이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 혼자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귀울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한 두 명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까. 수 많은 사람들의 외침에도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꿈쩍도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답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도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만 더 일찍와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지시를 하였다면 조금 더 많은 오빠언니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 없이 죽은 언니 오빠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요 우리가 정치에게서 조금이라도 눈을 돌린다면 또 하나의 박근혜 대통령이 생겨날 것입니다.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가지십시요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감사합니다.

Hello, my name is Jang, Ha Eun in the 3rd grade of Igok elementary school.

Although I am young at the age of 10 this year, I could not just watch my country becomes worse, so that I decide to do this free speech.

As you know, not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elected by us, but Mrs. Choi, Soon-Sil has decided important state affairs. For the position of president we chose Park Geun-hye, not Choi, Soon-Sil. Isn't it ridiculous that important state affairs have been done by a pseudo religious shaman?

Did we ask her to make Korea the number one strongest nation in the world beyond USA? Did we ask her to make Korea a magical nation to eat and live well without having to work? Although she cannot do everything well, it is her position as a president to think about the people, to stand on the people's side and to do one's best with responsibility. Sovereign power resides with the people, not the president. The president is not the person who adjusts the country at will. The president is someone who serves the people and leads the country for a better direction. If our country continues to flow to this wrong direction, it may fall into a pit where it cannot be escaped forever. We must stop it. President Park must step down and we elect a new president who can do it right and lead it in the right direction.

And Jung, Yoo-Ra, a daughter of Choi, Soon-Sil, did not study hard but went to a good university and got good grades. How many students, who have worked hard, suffered because of the admission granted to Jung, Yoo-Ra? Aren't those people like my parents, who teach justice and effort, more respectable than Choi, Soon-sil, who has used other people with her money.

Man cannot live alone in the world, so you have to know how to care for each other and listen to others. But president Park let thousands words of the people to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President Park Geun-hye, who does not keep up with her eyes and ears and ignores the cries of many people, frustrates us.

Even though Park, Geun-Hye must be punished, she is still enjoying his power in the presidential office. How are we not going to get angry?

More students could be rescued from the unfortunate Sewol ferry disaster if President Park just came earlier and gave the right judgment and direction. The students who died without any fault, are so pitiful.

Do not take your eyes off politics. If we turn our eyes even a bit from politics, another President like Park Geun-hye will be reelected.

Always, be interested in politics!

President Park Geun-hye, step down!

우리는 지금 역사에 남을 단 한 걸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민과 정부의 힘겨루기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낱 정권을 불신하는 몇몇 종북세력의 발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무너진 국정을 일으켜 세우려는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간으로서 해선 안되는 악행을 무수히 저질러 놓고도 진심담긴 사과 한마디 대책 한마디 마련하지 못한채 뻔뻔스럽게 국민의 등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은 이제 그 자신이 그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21 세기 우리는 헤아릴 길 없는 피와 눈물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국 군대에게 공격받던 것과 대공분실을, 학생들의 용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민중의 불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여 줘야합니다. 우리야 말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오랫동안 기만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손에 넣었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허나, 민주주의는 계절이 바뀌면 꽃이 피듯 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태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혹은 배가 침몰해 가는데도 손을 내밀지 않는 정부를 보았음에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퇴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국가라 칭하며 시위를, 집회를 빨갱이로 몰고 물대포로 사람을 겨누었음에도 우리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든 곧바로 잊어버렸고 체념하고 용서했고 무관심했습니다. 보십시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자유와 주권을 빼앗겼음에도 가만히 있는 것은 인간으로써의 존엄을 완전히 포기한 자들이나 하는 짓 입니다.

여러분 박근혜를 대통령이라 불러서는 안됩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놀아날 정도로 무능력했고 국민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에 이름은 우리가 되찾은 민주주가 기록될 역사상 한 페이지의 끝으머리에 부끄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싸움의 끝에 박근혜가 있고 그를 끌어 내리는 것이우리 민주 항쟁의 첫번째 신호탄이 되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끝으로 박근혜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여자도 자신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자라는 것을 핑계삼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제 당신이 숨을 곳은 박정희의 그림자도 육영수의 치마폭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세 번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We are now just one step ahead of the history. This is not such a trial of strength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It is not just a revolt of people who distrust government and are pro-North Korea. This is a justifiable act of the people to regain their sovereignty and to right government.

Although president Park Geun-hye did thousands of misdeeds that shouldn't be done as human being, she hasn't made any apology and countermeasure until now. And shamelessly she became parasitic existence of the people.

The daughter of a dictator is now became a dictator for herself.

The 21<sup>st</sup> century, our democracy has been built on the people's suffering, tears and blood. We still remember the suppression by armed forces, the illegal torture by national communist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courage of students. We should continue it. We should keep lifting the people's fire. We should show that we are the right owner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e can do it.

But we have deceived ourselves and regarded we've already built democracy completely. We thought it as a natural consequence. However, democracy is not coming automatically such as season blooming, but must be achieved. We became to have lazy mind, too. In spite of political corruption and the failure in rescuing students from sinking ship, we didn't realize that it is the retrogression of democracy.

Although she regarded protests and vigils as communist's acts and targeted citizens with a police water cannon, we didn't realize that it could be the end of democracy. All of us have forgotten it easily, given it up, forgiven it and been apathetic about it.

Look, this is the problem that we are facing in South Korea. You have to fight it out! You should protest against it. If we don't do anything despite being deprived of the freedom and sovereignty, it means that we abandon our dignity as a human being completely.

You should not call Park, Geun-hye president.

She is incompetent enough to have been toyed by her friend and is a killer to murder her fellows. Her name will be written very shamefully on the last page of the democracy history that will be recovered by us. At the end of our fight we will be confronted with Park, Geun-hye's power. To step down her will be the first signal of our pro-democratic protest movement and we should not forget it.

Finally, there is something I want to speak to Park, Guen-hey.

You need to know there is no woman in the world who is willing to avoid responsibility under the pretext of woman in society and at the work place.

Now, nowhere you hide.

Not anymore under the shadow of Park, Jung-Hee und the skirt of Yuk, Young-Su.

Finally, I will chant a slogan. Please shout with me, three times. Immediate arrest Park Geun-hye! Immediate arrest Park Geun-hye! Immediate arrest Park Geun-hye!

시간이 남으면 뭐 한 말씀 할까 했는데...

제가 어릴때 그랬습니다.

이북 사람들은 테레비나오면 말을 그렇게 잘 하잖아요 우리 위대한 수령은 이렇게 시작해서... 뚜벅뚜벅 한 말씀도 안 틀리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북한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재기발랄하고, 아주 희망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혁명의 본영은 민중이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들을때, 아, 도대체 그가 나의 주는 아니지만, 주여! 어떻게 그 말씀이 옳습니까 여러가지 고민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말씀이 맞고 단재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민중이고, 우리가 혁명의 본영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젊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머뭇거리느냐, 왜 우리가 여기서 들 나갔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교육,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뭐지?

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니,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국민교육 헌장이 정해 줬어요.

(말도 안됩니다)

어 제기람!

그걸 누가했냐, 박정희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 학년, 박정희가 총맞아 엊그제 뒈지는 날까지, 이 땅의 대통령은 문제없이 박정희였어요. 아무 고민도 안 했어요. 그때까지 그누구도 국무총리는 김종순이가 아니면 아닌줄 알았어. 아무런 ...안했어요. 아까 어떤 청년이 그랬지요..그 아버지가 정치는 하는 놈이 해야된다고 그 말과 같은 맥락에 이런게 있어요. 좋은게 좋은거다.

그거에요. 좋은 거 하나 안좋아요. 거기에 게길줄 알아야 해요. 이 자본주의에 게기고, 이 땅의 기득권층에 게기고, 게기는 청년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식과 사상을, 철학을 거기다가 묶어 놓은 것이 뭐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머지 교육들도 많지만

국사교육!

지금 식물정권이 되도 성남에 있는 국사편찬위는 국정교과서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국사 편찬 위원장이 누굽니까? 아세요? 정배입니다. 촌스러..이름도 촌스러워 김정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고대학생 있나요. 고대 총장했습니다. 그 전에 고대 사학과 교수했고요. 그 사람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신석호입니다. 신석호가 누군지 아세요? 친일파입니다. 신석호가 누구하고 친일했냐, 이병도하고 했어요. 이병도가누구냐? 서울대 국사학과 만들었어요. 근데 서울대 국사학과에 이병도가 1 세대면 2 세대에 이기백이 있고 노태덕이 있고, 지금 노태덕은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전에 그거 보셨지요. 젊은 것들한테 수치, 수모나 당하고 못해먹겠다. 누구죠 그 할베? 이기동입니다. 좀 연세있는 분들은 아니 제 또래만돼도 이기동 옆에 누가있죠? 배삼용이가 있는데 아 모르시는 구나.

제 이 말씀 뭐냐면 그렇게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아무리들어봐도 제 정신 못차린다는 거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원장이다국사편찬위 위원장이다 뭐 이런 직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서설 시퍼렇게 협박해요. 다시 아까로 돌아가십시다.

게겨야 돼요. 틀린것은 틀렸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많아야, 저년! 재낄수 있습니다.

## (맞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명박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집회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은 반신반의 했어요. 이게될까? 나오면서도 머리수만 채워주지. 물론 저도 이 친구들하고 싸우지 못해요. 지난 5 월달, 아니 작년 5 월달이구나 한 번 붙었다가 보름 앓았어요, 보름. 온 몸이 다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왜냐? 이것은 분명한 헌법 파괴예요.

# (맞습니다)

헌법이 파괴된 것은 무엇이 파괴됐냐 내가 파괴돼, 내가 깨진거예요 내가 깨진거라고나의 이 대한민국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실존이 깨진거라구

(맞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면 박수로..)

내가 깨진건데 나와야지 그쵸?

이건 누굴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예요.

이게 역사고, 이게 헌법이고, 헌법전문에 이렇게 돼있어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국민은 삼일운동과 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사일구 민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다. 그런데 저것들은 삼일운동도 몰라 사일구도 몰라 임시정부도 몰라 독립운동도 몰라 그래서 건국절 하겠다는 거 아냐

#### (오일육 알아요)

지금 편찬하고 있는 국정교과서가 그걸 충분히 담았을 거고 그리고 다시 나같은 사람 국민교육헌장 달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들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할 아무런 권리도 뭐도 없어요

#### (있어요)

나는 하루 두끼 먹는 사람이요 버스 안다니면 집에 못가는 사람이요 택시비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사랑스러워도... 내가 30 년 전에 빵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나와서 아스팔트에 눕기만 하면 빵이 그냥 날라왔어 그땐 아스팔트에 눕기만 하면 담배 500 원짜리 서울담배가... 500 원짜리 지금 4500 원이니? 서울담배가 그냥 날라왔어. 그때는 물 사먹는 시대 아니였으니까 물은 안 날라 왔지만. 여러분, 내마음이 지금 그때 네게 그렇게 던져준 어른들의 마음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게 없어. 진짜로, 이거 하나는 정말 미안하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길을 발현해 주신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I was wondering if I could tell you...

It was when I was young.

North Korean was so good at speech on TV as you know. They began usually with this way "To honor the dear leader for eternity..." The speech was really great without any mistake. But today I realized that we became to be like those North Korean. Our young people speech really very well. So talented and hopeful!

Sir Danje Shin, Chae-Ho said,

"The origin of the revolution is the people. But when I heard that, oh, by the way, although Jesus is not my god, "Jesus! How could it be the right argument? I considered... Today, I realized it was right and his word was truth. We are the people, and we are the origin of the revolution.

(That's right!)

Besides, we are so young, so beautiful and even so smart.

But the reasons why we hesitate here and don't go forward are due to our education system.

I want to tell you today about education.

I grew up memorizing the National Education Charter.

We are born on this country ... What was it?

Ah, I was born on this country with the historical mission of national rehabilitation.

The National Education Charter has decided already the reason of our birth in this country.

(That's nonsense!)

Damn it!

Do you know who did it? Park, Jung-Hee did it.

And when I was 6th grade elementary school, until the day when Park, Jung-Hee was assassinated by gunshot, the president of this country was Park, Jung-Hee without any problems. We were not worried about anything. Until then, we thought there is none for the Prime Minister except Kim, Jong-Soon. No, we didn't anything. One of you said before...his father said that only politician do politics well. As the saying goes, if it is nice, then it's nice.

It is the fact that nothing has been good. We must know to protest against wrong. Rebelling against capitalism! Rebelling against the Establishment! Young people who are willing to do rebelling, are wonderful!

(That's right!)

I believe the main influence on our values, thoughts and philosophy is from national history education, although there are other realms of education

In despite of incompetent government,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 is being written i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n Seongnam City. Do you know who president of the Institute is? Jung-bae...a countrified name, Kim Jung-bae... Do you know who he is? Is there someone who is studying at Korea University? He was the president at Korea University.

He was a professor of History in Korea University. Do you know who his teacher was? His name is Shin, Seok-Ho. He was pro-Japan collaborator dü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with Lee Byeung-do, who established the faculty of National History in Seoul University. He was one of the first generation of that faculty. Lee, Ki-Back was with Roh, Tae-Duk the second generation of it. Roh, Tae-Duk is now an honorary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id you see someone on TV? He said "Because of the indignity and disgrace I can't do anything more." He was Lee, Ki-Dong. Somewhat old generation know who he is...with whom did he usually work? Bae, Sam-Yong...don't you know him?

Ah, you are so young that you don't know him.

My point is that people who have such a wrong thoughts cannot change themselves at all, no matter how old they are. And they are the president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the Chairman of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With those official titles they threat you. Let's go back to before.

We must be against the wrong. If there are many young people in this country who can say so clearly "The wrong thing is wrong", we can step down that bitch (President Park, Guen-Hye). (That's right!)

And one more thing,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imilar vigils since the lat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people have been dubious. "Could this be done?", "I'll just fill the number of vigil. Of course I cannot fight against these guys (police officers) either. This year May, No, Last year May, after fighting back these guys my whole body was sick 15 days long.

But now, our situation is different. Why? This is a clear constitutional destruction.

(Yes)

The constitutional destruction means that I am destroyed, I am,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destroyed.

(Yes, if you agree with him, please give him applause!)

My existence is destroyed. How cannot we come out? Right?

This is not saving someone but saving myself.

This is history. This is the Constitution. We can find followings in the Constitution: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April Nineteenth Uprising of 1960 against injustice. But they don't know about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the April Nineteenth Uprising, other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all. That's why they want to Commemorate National Day.

(They just know about the May sixteenth coup of 1961)

I believe that the Commemorate National Day will be good described in new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 With the book they want to educate you like me who just trusted government politics.

I don't have any right to speak in front of you.

(No, you have it)

I am a guy who can eat just one time per day and cannot go home when I pass the last bus. I don't have money to take a taxi. Although I love all of you...

30 years ago, we got a lot of breads from people for free during the demonstration.

We got also 500 won cigarettes, Seoul cigarettes, for free. Is it now 45000 won? We didn't need to get water because we didn't pay money for water at those times.

My mind is the same minds of the people who supported our demonstration on the street.

But I cannot do anything for you. I am really so sorry for that.

(Thanks, it's O.K because we will have a chance to meet next time again...)

I am very grateful that you are here to participate in this candlelight vigil.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최순실로 인해 민주주의가 주목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만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슬픕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 위안부 문제, 국정 교과서, 사드배치, 청년실업, 노동자 탄압등으로 국민들을 돈과 기업의 노예로 만들고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배후 세력인 최순실과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고 국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은 단절한 채 자신과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에 분노한 국민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지금, 저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저에게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명령적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둘째, 제가 다닌 초중고등학교에는 반 학생 전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친한 친구의 의견만 듣는 반장들이 있었습니다. 반장의 뒤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학급의 일을 결정하는 반장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두발로, 교복으로, 시간표로 학생을 통제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직장에서는 노동자와 노동법보다 돈과 상품을 더 우선시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제가 직면한 가정과 학교와 노동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살 수 있고 치열한 경쟁이 아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공부하고 기계가 아닌 사람답게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싫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싫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뒤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싫습니다. 제 삶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의 책임입니까? 최순실 한명의 잘못입니까? 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것은 박근혜, 최순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부모님, 반장, 친구들, 선생님, 회사사장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최순실이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안의 박근혜를 발견하고 내 옆의 최순실에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돈이나 자신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돈과 이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수없는 경쟁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람답게 살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am glad that democracy has been noticed because of the allegation between Park Geun - Hye and his close friend Choi, Soon - Sil. But on the other hand, it is sad to hear that only the step down of President Park, Geun - Hye, is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The presidency of Park, Geun-Hye has made the people into slavery of money and corporations by unfortunate events such as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sexual slavery issue, the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the youth unemployment and the oppression of workers. And President Park made use of the people and ruined their lives for the benefit of her behind group, Choi Soon - Sil, and the Establishment. President Park has been making politics for herself and the Establishment without any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Because of Park's corruption and allegation people are very angry. Now I have questions.

First, I have a father who is patriarchal and violent. And there is an absolute commanding mother. My family cannot afford to spend time together.

Secondly, there were class foremen in elementary, junior and high school where they were willing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only their close friends without asking other's. At the back of the foremen, there were their friends who decided the class's work according to their taste. Despite the guarantee of personal freedom, there were teachers who controlled students with haircuts, uniforms and school timetables.

Third, in my workplace I had a boss who prioritized money and goods over workers and labor laws.

Do you think that problems in my family, school and work place could be solved if we step down President Park?

(We must solve them together)

Could I live in a happy family and learn not under fierce competition, but with pleasure? And could I work as a human, not a machine?

I do not want to speak that the step down of President Park will solve all the problems. I do not want to say that it will be good after the step down of President Park Geun-Hye. Is only the President Park responsible for the matters of my life? Only Choi, Soon - Sil?

Such as Park Geun-Hye and Choi Soon-Sil, my parent, class foremen, friends, teachers, boss in work place and people in daily life who treated me so badly. They did it although Park Geun-hye and Choi Soon-sil didn't direct them. Even though they could act humanly, they did not.

Hopefully we should find the wrong inside us and be angry with them who live near to us and do like President Park and Choi Soon-Sil. I would like to be in a world where it does not regarded, people as money, own possession and profits. I hope that there will be more people talking about making a world where people live humanly together and we don't think that we cannot survive without stepping on others in unavoidable competition.

안녕하십니까?

얘들 교육업을 하고 있는 정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저는 앞에 대학생이나 그전에 어머니처럼 말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얘들 가르치기는 하지만 뭐 제가가르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고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설문도 안써줬습니다. 일단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미안하고 증말 증말 미안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월호가 터졌을때 진짜 가슴아프게 울었겄만 금방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잊고 참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너희를 잊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고맙습니다. 어쩌거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용서를 해 주신다니 앞으로 쪼금만 더미안해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미안한거 저쪽의 의경들 방패들고 서있는 내가 저분들 욕했습니다. 많이 이씨...욕은 하지말라고 거기 종이에 써 있어가지고 욕을 할 뻔 했내요. 근데 제네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네들도 여기서서 촛불들고 박근혜 퇴진하라고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네들은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제네들이랑 싸우지는 맙시다. 우리 언제까지나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그렇게 시위합시다.

그리고 세번째 제 옷에 촛농 흘리고 가신 분, 이거 여자친구가 사준건데 욕했습니다. 근데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라와서 보니 미안합니다. 그 분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세탁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환호성 질러주시니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의점 국가가 되었습니까? 1+1 이예요. 하나를 샀는데 하나가 더 왔어요. 콜라를 샀더니 환타를 주네 그리고 그 콜라가 말하기를 결정할라고 하니까 야 환타한테 가서 컨펌받고 와라 우리나라가 편의점 국가 입니까? 편의점이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편의점 국가입니까? 우리나라는 편의점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다 1+1 을 사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대통령을 1+1 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은게 산더민데 체계적으로 연설문을 써준 놈도 없고 길게하면 옆에서 짧게 해라 뭐라하고 그래서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딱 진짜 진짜 죄송한데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열불나가지고 아니 아휴 씨 두개만 더 해도 되나 진짜 열받가지고 아니 짧게 할게요.

김진테의원 말했지요 촛불 꺼진다고 절대 안꺼지니까 걱정하지...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당신네들이 휘발유라서 우리 촛불은 안꺼진다. 이런 씨발! 이거 욕아니예요 욕 아니예요 욕 아냐 아주 김진태 의원 좃같은 발언, 주옥같은 주옥같은 주옥같은 발언때문에 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세금 내지 말라고 하신분 정말 대단합니다. 저 돈이 없어가지고 자동차세를 못내서 번호판이 뜯겨서 자동차를 못타고 다닙니다 근데 졸지에 영웅이됐습니다. 주변에서 하하하 어쨌거나 지금 돈 없어서 못내고 있지만 돈 있어도 안 낼겁니다. 정권 바뀌면 그 정권 도와줄려고 근데 더불어 민주당 뭐합니까 지금 씨 아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라고 욕하니까

My name ist Jung, Yo-Sup and I am doing educational business for children. Nice to meet you! I cannot be good at speech very well such as the college student and a woman who spoke in front of me. Because... Although I do educational business I didn't teach children by myself. Teachers do it.

My education level is only high school diploma.

(It's O.K)

And I don't have many friends who write this speech text for me.

First of all, I must apologize to all of you. I am really sorry, really so sorry that I want to be here. When Sewol ferry disaster struck, I cried my hart out. But I quickly forgot it because it was hard to make a living. I was. So...sorry! I have forgotten you, guys! I am really so sorry! (It's O.K! It's O.K!)

Thank you! Anyway, many of you forgive me that I can live in less burden of it in the future and don't say about it anymore.

My next apology is that I abused those policemen hard, who are standing with shields there...very hard... Anyway I shouldn't abuse anyone according to the guideline of speech text. How can they be guilty of the corruption of President Park? Let's don't hate them. Let's don't fight against them. Let's demonstrate peacefully in nonviolence.

Third, I abused the man who dripped wax on my jacket...this is what my girlfriend bought for me. But I think he can mistake. Now I feel sorry for him. I forgive him, too.

I will pay for the laundry.

Thank you for your cheering.

Since when did Korea become a nation such a convenience store? It's 1 + 1. I bought just one but got one more. I bought just a Coke but got a Fanta more, and when one asked the Coke to decide what to do, the Coke said that he must go to the Fanta first to get confirmation. Is my country a convenience store although there are many convenience stores in Korea? Korea is not a country such as convenience store. Of course, I know that you and I go to a convenience store and prefer to buy 1 + 1 products, but we did not choose the president such as 1 + 1 products. I really have lots of thing to tell you. But there is no friend to write a speech well and these staffs say that I should speak shortly ASAP...so I should finish my speech.

I'm really sorry, but I'll just say one more thing. Could I do two more? But I will make it really shortly because I am so angry.

Parliamentarian Kim Jin-tae said, "candle will be soon extinguished" But don't worry! It will not be like that. Kim Jin-tae and Senuri party are like benzine so that candles won't go out. Fuck this! This is not abuse. Awesome, awesome, his saying was awesome so that I am very angry.

And someone who spoke us not to pay taxes is really great. I cannot pay the car tax because I do not have the money. My license plate is ripped by officials and I can not drive the car. Because of it I became a hero suddenly. I will not pay it anyway although I have enough money to pay it. I will save the money to help the next good regime. But where is the Deobooleoh Democratic Party now? I will go down.

 $(\ldots)$ 

부산 가덕도에서 왔습니다.

 $(\ldots)$ 

50 년 세월 봉사밖에 모르고예 시장상, 구청상, 장관상 그거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저거 정치인들이 우리 가지고 놀기위해서 주는 쓰레기 입니다. 그런거 받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전부 탈퇴하십시요. 절대로 그 사람들에서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단체장들 다 정치인들 종입니다. 종! 저는 동부녀회회장 6 년째 가다 1 년 남겨놓고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속았어예

공무원들인네 쏙고, 구청장인네 쏙고, 시장인네 쏙고, 국회의원들인네 쏙고, 시의원들인네 쏙고, 구의원인데 쏙고, 대통령인네 쏙고, 장관들인데 쏙고, 그 새끼들 사람 아닙니다.

제가 뭔 말 하는 지 우리 국민들 안보면 한 분도 모릅니다. 우리 세금내면 즈그들 호주머니 넣어갈 생각만 합니다. 길 뚫는 거 우리 위해서뚫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공사를 해야 즈그 주머니 뜯어 가는게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표 찍으실때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보시고 거짓말 안하는 사람, 우리 어려운 사람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꼭 뽑으십시요. 절대 당도 보고 뽑지 마십시요. 저는 세누리 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때 부터 소녀가장으로 커서 자격지심... 새누리 밖에 오직 모르고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60 살 입니다. 근데이제사 보니까, 한 10 년 돌아보니까 세상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국민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친년 처럼 새누리 밖에 모르고 살았고 정치인들밖에 모르고 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 제가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을 탄원한다고 모 저기 대표님인데 노무현 대통령 묘지에까지 찾아가서 봉투를 드렸는데 그 탄원서가 쓰레기로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한테 돌아오지도 않았고 사무실에도 없었습니다. 돌려줄라 하니까 자기들도 못 찾아서 못돌려 줬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우째 믿겠습니까? 믿지 마십시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인님들,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라도 혹시라도 민원이 오거든 돈 주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만 텔레비 내보내지 말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내보내 주십시요. 그게 진정한 언론인입니다.

제 말은 여기서 줄이고 먼 곳에서 다 모여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박근혜 탄핵합시다.

 $(\ldots)$ 

사실은 우리가 이주를 하면서 이주 택지를 우리엄마 서류 공권리를 이전에 사망했다고 안주고, 나는 내거 한게 있다고 안주고, 우리 아들은 가구수가 아니라고 안주고, 또 민원소송으로 길거리로 쫓아내고 거기에 공무원들도 합세하고,구청직원들도 합세하고, 부위원도 합세하고, 시의원도 합세하고, 구청장도합세하고, 이놈인데 쏙고, 서 놈인데 쏙고, 쏙고, 쏙고, 또 쏙고 그러다보니 정치가이꼴이 났습니다.

I am from Gadukdo, Busan.

 $(\ldots)$ 

I have been doing community service for 50 years. All of the Mayor's Award, the Officer's Award, and the Minister's Prize are worthless like garbage. It is garbage that politicians give us it for playing with us. If you are receiving such a thing, please withdraw from it. You should never be toyed by them. Most of local leaders are slaves of politicians. Slave! As a local woman leader for 6 years I have served and guitted it without finishing the last year. I was toyed and deceived by them.

Deceived by officials, deceived by the head of district, deceived by mayor, deceived by parliamentarians, deceived by city council members, deceived by district council members, deceived by presidentin, deceived by ministers. Those assholes are not human.

You cannot understand what I mean if you don't experienced it directly. Tax officials embezzle our tax. Building new roads are not for us. After the building they get bribes from it.

Please consider your endorsement on election. Please choose the candidate who doesn't lie and stand for poor people. Please don't choose anyone because of his party. What I have known as a good party in my life was only Senuri Party.

I was a child head of household...have inferiority complex. Anyway I have only supported Senuri Party. I am 60 years old now. But after thinking of past decade, I realized now that this is not the world what I wanted.

My dear people, I sincerely apologize. I am really sorry that I have lived like a crazy bitch with the wrong knowledge of party and politician.

And one more thing, I had a difficult matter and asked a president of a political party to help me. To give him my petiton I even went to the place where the cemetery of President Roh Moo-hyun is, but the petition went into garbage box. I wanted to get back it but staffs in his office said that they cannot find und return it. How can we trust those politicians? Let's don't trust them.

I would like to speak one more issue.

Journalist, please report on TV about not only intelligent, but also problems of the poor people. That is the true journalism.

I will finish my speech now.

Dear Korean gathered from far away!

Let's step down Park Geun – hye!

(...)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교대..아니 공주에서 온 5학년 금라교입니다.

저는 글쓰기가 싫어서 제가 말하면 엄마가 서줬는데 대통령은 최순실이 써준 것을 꼭두각시 처럼 그냥 읽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를 좋게 만들려는 생각을 못하나 봅니다. 금붕어 한테는 미안하지만 금붕어 지능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자신이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최순실과 비서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하려고 초등학교 가서 말하기를 배웠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잠이 안옵니다.

어 이 시간에 메이풀 스토리 하면 레벨업이 되는 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촛불을 들어서 게임을 안해도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와 친한 사람이나 재벌만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된 것이 자괴감 들고 괴로우면 그만두세요

어 그리고 저같은 초등학생에게 시국선언이나 자괴감등 이런 단어를 가르쳐 준박근혜 정부꼐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친구와 노는 얘기가 아닌 수다가 아닌 즐거운 얘기가 아닌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해 이야기 한 것도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금붕어지능을 가지신 어떤 분은 이말의 뜻을 잘 모르시나봐요. 귀가 안좋으신가 눈이 안좋으신가. 전국에서 이 여덟글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못알아 들으실 까요 저도말합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 Hello,

I am from Gonju and in the 3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My name is Geum, Ra-Kyo. I didn't like to write, so my mother wrote my dictation.

But like a Marionette, Presidentin read the speech text that Choe, Sun-Sil wrote.

It seems that president doesn't have any idea for country. I am sorry for goldfish but the president has low IQ like a goldfish. The president gave her power to Choe, Sun-Sil so that she isn't our president any more. Even though the facts are revealed, she is willing to leave the responsibility to her cabinet minister and Choe, Sun-Sil without any sense of responsibility.

I cannot sleep and feel painful because of the frustration of Korean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Uh...actually, now is a time to level up with "Mayfull Story". It is sad that I cannot do it.

But I would like to live in country where all people are equalized even if I cannot play games and we don't have so much money. It is not a developed country where only the rich lives well such as president's friends and business tycoon. If you(the president) feel painfull and distressed, please resign the president.

I am really grateful to Park Geun-hye, who taught elementary students like me such words as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or the feeling of painfull. And I am also grateful that I could talk about my country and society.

And someone who has goldfish IQ, does not know what this means. You have bad ears or bad eyes? Why doesn't she understand these eight characters that is chanting all over the country? I shout also, Step down Park, Guen-Hye!.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온 19살 김벼리 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에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는 지금껏 유래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기는 하였습니까? 저는 조금의 두려워 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시위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국민들이 진짜 정말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시간동안 박근혜와 그일당들이 국민들 등골 후려먹으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조금 더 강한 저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 오는 길에 세월호 유족분들의 행진을 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언론과 우리들은 지금껏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언론은 유가족들에 관한 자극적인 보도는 계속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보상정책등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7 시간 행방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최순실 박근혜 사태는 세월호를 수면위로 올려놓았고 비로소 7 시간의 행방을 쫓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덥어놓았던 일들이 어찌 세월호 사태뿐이겠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사태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썩은 뿌리들을 흙 위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었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반성의 마음이 듭니다.

세번째로, 국민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장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생기는 국정공백, 혼란 지금같은 대통령이라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의 촛불의 힘이라면 국민들이 스스로라도 국가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모두는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내려오는 것을 원치 않으며 역사상 가장부끄럽게 모멸감을 느끼며 내려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화문 하나에 친박이며비박이며 돌아서고 입장바꾸고 하시는데 부탁인데 제발 국민에 의해 그 자리에계신는 것이라면 정치적인 계산 좀 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라는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없어도 되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즉각 사퇴하실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계신게 이 나라 주권자들의 뜻이 아닙니다. 질서있는 퇴진이요, 주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만이 정의이고 질서입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19 years old, from Pyeongtaek, Gyeonggi Province and my name is Kim Byeoli. I will summarize in three categories from what I want to say.

First, we have had a peaceful candlelight vigil that has never existed before. But what is the result? Did Park Geun-hye really apologize to the people? I have not seen a little bit of her fear. What I felt as a result of this demonstration is that our people are really good. So, for a long time, Park Geun-hye and his party seemed to be able to survive by exploiting the people. That's why I think we can resist a little bit more.

Secondly,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say. On the way I saw the Sewol ferry disaster breaved family. I feel shame because the press and all of us have ostracized the family for years. The media continued to make provacative reports about the breaved families but they kept silent about the government's mismanagement policies. Meanwhile, President Park's seven-hour scandal has disappeared from people's memories. This corruption of Choi, Soon-sil and Park Geun-hye, revealed the problem of Sewol ferry disaster again and made it be investigated. It couldn't be only about the Sewol ferry disaster that hadn't been revealed.

It is a shame that the corruption between Choi, Soon-sil and Park Geun-hye, played a role in revealing of the political probelems of Korea.

Third, the demand of the people is the immediate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Although our country will be in a state of chaos and confusion by results of it, we are enough to overcome it without president Park, Geun-hye. With the power of the candle vigil in Gwanghwamun Square, the people will be able to manage the state by themselves. We all hope that President Park does not resign in honor but step down with the most embarrassing disgrace in history. And I ask parliamantarians of Senuri Party who change their political posisions so often. If they know that they are elected by the people, they should not think only their political profits but do something for the country"

Lastly, we don't need any president like you. Don't worry and please step down immediately. Your position as a president isn't what we want. Resignation in honor? The will of the sovereigns of this country is immediate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Is not that right?

President Park Geun-hye's immediate resignation is justice and order.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부와 우리 사회의 시커멓게 썩어버린 속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이전에도 우리는 수없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국정교과서, 노조탄압, 노동개혁, 사드배치, 백남기 농민,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구제역 하청 노동자의 죽음 하루가 멀다하고 죽음을 봐야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이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또 이 집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올아왔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모인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병신녕'이나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하는 문장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 말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자 비하 표현이고 박근혜를 여성이라는 성을 부각하여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문장입니다. 집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기록하 학생들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해 주십시요 집회 대열안에서는 흡연하지 말아주십시요. 비흡연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저의 이런 발언이 마냥 지적처럼 들리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분명 여성, 성 소수자, 청소년, 장애인들이 모든 시민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집회 안에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요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고 있는 저는 박근혜가 퇴진하여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만큼 최저임금이 오르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바라건데 사장님으로부터 성희롱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는 더 멋진 세상을 만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함께 평등한 집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We are demonstrating here that our government and society have become rotten. Didn't we see it many times before? Sewol ferry disaster, new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 labor repression, labor reforms, THAAD, the death of farmer Paik, Nam-ki, misogynic murder in Kangnam station, the death of a subcontract worker in Kuje station etc. In which country on earth do we live then if we are confronted with those death so manytimes? It is really nonsense. Would not we be the one who gathered here who can correct this world that is going wrong?

But I have also come to this place to talk about matters in vigil. In this place where we gather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here are sentences being said "Byeongsinnyeon (similar to a vulgar language pronunciation against woman)" or "If the hen cries, the country is ruined". These statements that expresse disgust and disgrace to the disabled, the weak and women. They also emphasize only the sex of a Park Gyeong – hye, but not her corruptions. Please do not praise youth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rallies only as young students, but respect them as equal fellow citizens. Please do not smoke in the rally. It is the least consideration for nonsmokers. I consider if you think my speech sounds critical and unimportant. But including women, sexual minority, youths and the disabled, all of us come here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gether. I want to dream of a world where we can live together. Please understand that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discriminated in the rally and listen to our voices. I am a part-time worker. I hope that Park Geun-hye will step down and the sovereignty will be back to the people. Likewise, I hope to have a human life. I would like to live a world where my boss cannot harass me sexually any more. We are ready to make a better world as we go out into the streets and shout democracy. Let's keep a peacefull vigil together.

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걸 보니 제가 혼자는 아닌것 같아서 굉장히 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박대통령, 사실 그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 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사전에도 나라를 무당에게 맡기고 꼭두각시 노릇을 한 지도자를 칭하는 호칭이 없어서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박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씨와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저버린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이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을 흘려가며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부터는 개돼지, 흙수저로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을 위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 언니를 위해, 또 아직은 너무 어려서 뭘 잘 모르는 동생을 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과 모레를 주기 위해서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박대통령은 그리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은 박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씨에게 그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통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외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반도 사드배치,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등과 같은 말도 안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을 농락해왔으며, '증세없는 복지'라는 아주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 되었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담배세나 간접세 인상등으로 우리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식의 메세지를 남겼지만,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긴 했습니까?

대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했던 복지는 물거품이 되었고 국민들의 혈세는 복채처럼 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의 현실을 보며 이럴려고 공부했나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울 뿐입니다.

즉 박대통령, 아니 박근혜씨야 말로 이 모든 문제 근원이자 본질이며 최순실씨는 이 모든 사건의 포문을 여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 박대통령은 대통령 즉 국민의 대표자라는 권력과 직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그 힘의 크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박대통령은 우리의 국민 그리고 우리 주권자가 선사하는 권력을 사사로운 감정에 남발하고 제멋대로 국민 주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남용하여 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다면 이제는 그 남용한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질 차례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개국 97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박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박대통령은 연설문 및 청와대 홍보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수정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최순실 국정개입과 관련된 모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십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줍지 않은 해명이 아닌 진실입니다. 우리 국민 그리고 주권자는 이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고 이를 알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포함해서 국가 근간을 유린하고 국민을 농락해온 자들에 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수사를 즉각 진행해 주십시요. 정부도 국회도 믿을 수 없는 이 마당에 검찰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요. 우리는 더이상 의미없는 이 진실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박대통령은 감성팔이 식의 쇼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적 사과로 응답하십시요.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당신의 100 초 또는 9 분 20 초 짜리의 정성스런 헛소리가 아닌 앞서 언급한 모든 질문에 상응하는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당신의 지지율이 5%이고 10 대, 20 대 지지자가 100 명중 한 명인 이 판국에서 당신의 사과는 먼저 당신이 하야했을때 그 빛을 진정히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이 민주를 향한 노력이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언제나 그랬듯이다른 사건들처럼 점차 희미해지고 변질돼 없어질까봐 그리고 또 이 재정일치 사회에몸담아야 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같이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꿈꿀수 있는 내일을 위해 부디 오늘을 잊지 말아주십시요 56 년전 1960 년 2 월 28 일 바로 이 땅에서 대구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에 규탄하여민주주의를 지켰듯이 바로 오늘 또다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민주주의을 다시 일궈내야 할때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길의 끝이어디일지 무엇이 있을 지 모르겠다만 우리 꼭 함께 손을 잡고 그 끝을 봅시다. 자유롭고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주의여만세!

First of all, I feel much encouraged by many of you and not alone. Thank you.

President Park, Geun-hye... I have considered what to call her today. But there is no word in any dictionary calling a leader who has entrusted her country to a shaman and been played like a marionette. Therefore I call her president yet.

Yes, it is. Today, we gather here to make justice for the corruption of President Park, who has privatized state power with Choi, Sun-sil.

In fact, I'm a very ordinary high school student.

If it is a normal day, I would have read the history books and have prepared the upcoming test. However, I saw this unreasonable and gruesome reality and thought that it was not right, and I came out in today 's living history book.

I had to do something. For my dear parents who work hard for me but are treated as dog, pig and scrapper from society, for college applications who is going to feel frustrated before coming out to society and for my younger brother who doesn't know very well about political matters, I had to do something to give them a better future.

Now, President Park and most of the media in Korea are willing to focus on Choi Soon - sil, not Park. But I think this is blurring the fact. President Park has inveigled us into wrong policies such as new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 THAAD in South Korea, agreement on sexual slavery by the Imperial Japanese Army, Sewon ferry disaster etc. and she has made our people more difficult with nonsense presidential candidate policies such as cigarette tax and indirect tax hike.

President Park left a message on her last public speech (4<sup>th</sup> November) saying that she cannot step down for politics and economy. but everyone! Has it ever been governed correctly during Park's presidency?

What kind of country did you want to make? Who is the President you wanted to be? The promised welfare policies became a waste and the people's tax was used like a gift for shaman. Our youths see the realities of this society and feel embarrassed and painful.

Namely, President Park Geun-hye, is the source and essence of all these problems, and Mr. Choi played the role of opening the door to all these scandals.

In conclusion,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resident Park and Choi Soon-sil, she has the power and position of president as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Gentlemen, the bigger political power one has, the more responsibility one should have.

Without permission of the sovereign, namely, the people, president Park has been abusing arbitrarily her political power that the people gave her.

If she used her position to abuse her power, it is now time for her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bused power. Therefore, November 5, 1997, I am asking President Park for taking following responsibilities.

First, president Park should investigate and reveal the facts of her scandals such as illegal distribution of her speech draft for editing, Choi Sun-sil's interfere in important state affairs.

What we want is truth, not poor excuse. Our people, sovereigns have a reason and right to know them.

Secondly, president Park Geun-hye should launch immediate and fair investigation for all corruption and allegation including herself.

How can we trust the prosecution under the situation that we cannot trus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y more? Yes, it is. Please punish every allegated people severely through fair and transparent investigation. We do not want to continue to play this truth game that is no meaning anymore.

Third, president Park must stop the emotional show and respond with a sincere and responsible apology. We are not dog and pig that must accept the princess' acts like a baby. We urge you to respond to all of the above-mentioned demands, not your 100-second or 9-minute-twenty-second deliberate bullshit.

Of course, under the situation of your 5% approval rating and only 1% of teens supporting, your only one acceptable apology will be immediate step down.

I am afraid... I am afraid that our today's efforts for democracy and the truth of these affairs will be faded away and deteriorated like other allegations and I live in a theocracy society in the future again. We must try to improve our society together. Please do not forget today for the young people's dreams.

56 years ago, February 28, 1960, as Daegu students have defended democracy in Daegu against injustice and corruption, our Daegu citizens revived democracy again. Dear Daegu citizens, this is not the end. I do not know what the end of this road will be, but let's just hold hands together and see the end. Hurruh democracy for the infinite glory of free and just Korea!

예,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있는 경민 비즈니스 고등학교 3 학년 진유나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사장은 새누리장 국회의원으로 친박 핵심인물입니다. 얼마전에 여기 들고 있는 이 내용물을 들고 학교에서 1 인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요, 학교 선생님과 학교 학생회가 안된다고 말렸습니다. 선생님 두 분은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잘못한거 없다고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른 선생님 두 분은 우리학교 교복입고 뭐하는 짓이냐 할 짓 안할 짓 구분해서 잘 행동해라 어른 흉내벌 필요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구요 19년 밖에 안살았습니다. 내년 성인이 된다고 해도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산세월 보다는 못살았었어요. 저는 그래도 제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항상 말하잖아요. 너희가 정치적 책임이 있냐고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 따위가 감히 싸가지 없게 나라의 주인들을 농락하는 걸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주머니에 손 꼭고 구경하는게 어른들의 정치적 책임이라면 저는 어른이 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집에 큰 불이 나서 제가 어렸을때 부터 모은 돈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날라갔는데 지금 저 학교 갈 버스비도 아까와서 학교를 50 분 동안 걸아다닙니다. 대학교도 대학교 원서비가 아까와서 4년제 3개 밖에 못썼습니다. 오늘도 알바가면 7만원 버는 거 7만원 포기하고 왕복 전철, 버스비 내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모두 저와 비슷하잖아요 돈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포기하고 휴식을 포기하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지금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국회의원은 대통령직와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야 합니다. 청렴할 자신이 없으면 정치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Jin Yu-na and I am a student in the 3<sup>rd</sup> grade of Kyungmin high school, Uijeongbu.

The chairman of the school council where I study is a key figure for president Park as a parliamentarian of Senury Party. A few days ago I was willing to take a one-person protest in front of school with this picket what I am holding now. Most teachers and student council members didn't let me do it.

Two teachers consoled me and said that I didn't do anything wrong and have a freedom of express in Korea. But the other two teachers said that I should not do anything wrong wearing school uniforms and imitate adults.

Yes, that's right. I am still young. I have lived only 19 years. Even if I become an adult next year, I am still younger than Park, Geun - hye, Choi, Sun-sil and teachers in school. But I think that I am doing my best for my country in my position. As the adult always say, political responsibilities belong to not the youth, but the adult. I will give up being an adult if it is the adult who looks on president's inveiglement with folded arms and the rude president was even elected by them.

A few days ago, a big fire broke out in my house, and the money I had collected from my childhood and the money my father had collected for a lifetime had passed away. For saving money I go to highschool on foot. It takes about 50 minutes. And University also... I had to apply to only three universities because the application fee is so expensive.

If I go to work in part time job today, I can get 70,000 won. But I gave up 70,000 won and came here paying subway & bus tickets.

I believe all of you who gathered here, are similar to my situation... give up money, the meeting with friends, rest after working and something else and now we are here to chant,"Step down Park Keun-hye".

Park Keun-hye and parliamentarians in Senury party must resign their positions if they cannot to be politicians of integrity.

고등학교 1 학년 이효진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1 인 자유발언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때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너 자유발언하면 대학교갈때 불이익 받을 수도 있데. 어 누군가는 고등학교를 17일 출석하고도 누구나 가고싶어하는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데 민주사회를 이룩하기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학생들은 자유발언대에 서면서도 대학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저를 겁주기 보다는 오히려 이자리에 서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잡으니 문득 그때 생각이 남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협정 무효화 시위, 제가 참석한 첫 집회이기도 하고 첫 자유 발언을 한 집회이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함입니다. 앞서 저는 지금 그분을 더이상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분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 박근혜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세월호, 위안부, 옥시 가습기 사건, 이번 국정화 교과서와 박근혜 게이트 그리고 이 혼란속에서도 통과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금 제가 생각나는 이 잘못만 해도 수십가지입니다. 제 또래의 학생들이 배에 갇혀 추위와 죽음에 맞서서 싸워야 했을 때도 피의자는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구조하지 못하는가라고 물었고 위안부 할머니들께서싸워오신 수십년을 돈 10 억엔과 바꿔버렸습니다.

재임 4 년 동안 끈임없이 소통을 강조해왔던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않아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뇌물수수, 집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포괄적 뇌물수수등 많은 범죄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과 최순실 그리고 그측근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테니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학생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범죄의 중심에 서있는 피의자 박근혜, 저는 피의자가 정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고, 하야할 것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검찰조사에 응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피의자는 이제는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헌법과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을 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가지는 이유는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은 존재합니다. 현재 피의자는 국민들에 의해 국민의 대표임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더이상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국민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의자는 검찰조사에 응해야만 합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국민들이 내리는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피의자의 무능력함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4 월 16 일의 7시간 이후에도 위안부 합의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거리로 나왔고 한 목소리로 그녀의 무능력함을 지탄했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4 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정을 수습할 때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곧 날이 추워질테고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박근혜 게이트는 무덤덤한 일이 되어 갈 것입니다. 피의자와 피의자에 진실한 사람들은 아마 그들이 벌어놓은 시간안에 우리가 지치길 바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쳐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에 무던해 져서도 안됩니다. 잊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사회를 바꿔야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박근혜 피의자 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는 많은 권력자들에게 거리의 힘 그리고 기억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들고 계신 수많은 촛불들이 민주주의의 햇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발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I am a student in first grade of high school and my name is Lee, Hyo-jin.

When I decided to make this free speech here, people around me said that I might have disadvantage of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While someone who attended a high school only for 17 days per year, went to a prestigious university, many students who are trying to make a speech here and democratic society, have to worry about the disadvantage of university entrance. But this situation made me stand here and take a speech here rather than scaring.

This moment of standing here and catching microphone suddenly makes me look back on protest against agreement on sexual slavery by the Imperial Japanese Army that was the first rally I attended. I made my first speech at that time. I become to realize the inability of the government whenever I catch this microphone.

First of all, I will call him not a president Park Geun-hye, but a suspect Park Geun-hye because she must be responsible for everything she has done.

Sewon ferry disaster, sexual slavery by the Imperial Japanese Army, the toxic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new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 the gate of Park Geun-hye and Korea-Japan military information protection agreement ... there are dozens of her fault that I can remember.

When my age students were trapped in a boat and struggled against cold and death, the suspects asked rescue team why they could not rescue if the students were life jackets, and they exchanged the decades struggle of sexual slavery by the Imperial Japanese Army with 1 billion yen.

She has been emphasiz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for four years. But she did not listen to anything and she did not tell us anything. Currently, suspects are accused of many crimes including bribery, abuse of power, disclosure of confidential government information and comprehensive bribery. I will not mention about the corruptions done by Park Geun-hye, Choi Soon-sil and their fellows anymore because everyone knows about them very well.

What I stand here and ask them in the name of the students is their responsibility. Among them, Park Geun-hye standing at the center of all crimes should be as a suspect legitimately investigated. The suspect, who bowed her head to saying that she would accept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only a while ago, is now refusing it with using the Presidential fluoride privilege. Is it right to protect the President who denies the Constitution,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The presidential privilege of fluoridation is no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resident as an individual. President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and the Constitution exists to protect the people. Currently, her position as a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is denied.

In fact, she is no longer president. There is nothing existing above the people. The suspect must be investigated by the prosecution. If she refuses it, it must be enforced. In front of the people she should be judged and punisched by them. It is not that we have not known the incompetence of the suspect so far. Even after seven hours of April 16<sup>th</sup> and Korea-Japan military information protection agreement, we went out into the streets and chanted her incompetence in one voice.

However, the suspect did not hear anything. Four years have passed without changing anything. Even today, Lee Jung-hyun, leader of the party, says he will maintain the party's leadership until governability will be stable. Weather will be cold soon and the Park Geun-hye gate will be slipped from People's memory.

The suspects may hope that we will be exhausted in an instant. But we should not be exhausted. You should not be tired of this case. Do not forget. We have to change society and ourselves. To Park, Geun-Hye and other unknown suspects, the strength of the street protest and the power of memory to them must be shown. This is also our responsibility. I finish this speech, hoping that the candles hold in your hands will be the torch of demacracy

Continue...
Next speech texts will be translated and uploaded.